

## 한국전쟁기 북한 전쟁소설의 특성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Korean war novel during the Korean war

신 영 덕

공군사관학교 국어과 부교수

Shin Young-Duk

Dept. of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Korean Air Force Academy Associated Prof.

### I. 서론

한국전쟁기 북한 소설에 대한 북한의 문학사적 평가는 남한의 문학사와 비교할 경우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남한에서 나온 대부분의 문학사에서는 한국전쟁기 남한 소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북한에서 나온 문학사의 경우에는 한국전쟁기 북한 소설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남북한 문학사의 문학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나온 북한문학사의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작품을 왜곡하여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태준, 김남천, 임화 등 남로당 계열 작가의 작품에 대한 북한문학사의 평가는 특히 그러한데,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 문학에 대한 논의들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전쟁기 문학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조사와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 시대 상황에 따라 작품이 수정 혹은 개작되어 출판되고 작품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지고 있으므로 북한 소설 연구에 있어서 원본 확인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한국전쟁기에 출간된 작품으로 한정하고 한국전쟁기 북한 전쟁소설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시기 북한 전쟁소설의 특성은 인물의 형상화 방식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전쟁소설에서는 등장 인물을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로 확연히 구분하여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는 작품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형상화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II. 긍정적 인물의 유형과 형상화 특성

한국전쟁기 북한 전쟁소설에 등장하는 긍정적 인물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북한군을 비롯한 애국적 인물, 중국군 등이다. 이것은 전쟁 승리를 위한 '문학 예술의 무기화'를 주장한 김일성의 지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는 숭고한 애국심을 형상할 것,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표현 묘사할 것, 국제친선사상을 테마로 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 것 등의 지침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 작품 속에서는 긍정적 인물들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설야의 '김두섭'(*『문학예술』* 6권 3호, 1953.3)은 전쟁 초기 전투과정에 있었던 북한군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김두섭은 단 하나 뿐인 형을 의지하고 살았으나, 형이 일본 탄광으로 끌려가자 형수와 어린 조카와 살게 된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월사금'을 내지 못하는 그를 선생들은 '개고기'라 부른다. 이후 그는 고향인 신창 정거장의 기차 소제부가 되었고, 전철수에서 다시 화부로 일하는 중에 해방을 맞이한다. 또한 두섭은 철도 경비대에 있다가 보안간부 훈련소를 마친 후 박격포 '묘준수'가 되었고 뒤에 '땅크' 연대 강습소를 나온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그는

자기의 소질을 구김 없이 드러내어 짧은 기간 동안에 전사로부터 중대장에게까지 승급하게 된다. 이후 그는 '38선 이북으로 북을 침공한 적을 반격하여 일거에 개성을 해방하고 임진강을 건너 문산 계선까지 밀고 가서' 서울 점령을 눈앞에 둔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해방 이전에는 미천한 신분의 주인공이 해방 이후 전개된 북한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영웅이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 소설에서 하나의 공식처럼 등장한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영웅을 그려냄에 있어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당 문예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전쟁기 북한 전쟁소설 중에는 민간인 신분의 애국적 인물을 형상화한 작품도 상당 수 있다. 이들은 전장에서 싸우는 북한군에 못지 않게 후방에서 혹은 '적'에게 강점된 현실 속에서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종민의 「궤도 위에서」(『문학예술』 4권8호, 1951. 11)는 기차 승무원 인순이의 애국심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인순이는 적의 폭격으로 레일이 파괴되자 휴가를 단념하고 레일 복구를 위해 애쓰는 애국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오빠 인호의 중재로 송남 동무와 약혼을 하였는데, 송남이가 어느 날 '모래독에 박힌 시한탄'을 파헤쳐 치우다가 상처를 입어 그의 뺨이 보기 흉하게 된다. 이에 인순이의 마음이 흔들리자, 오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년 송남 동무가 것처럼 됐다 해서 마치 꼭 채우잖은 수도꼭지에서 똑똑 새여 흐르는 물방울처럼 간간이 락 땅을 가지는 것 보담두 누가 그를 그렇게 했나 하구 보복할 줄 알아야 하구. 그를 더 존경하구 사랑해야 한다.(p.26.)

결국 인순은 오빠의 말을 듣고 약혼하던 날의 약속을 생각하며 송남의 기운을 돋워 주기로 결심하게 된다. 약혼자의 보기 싫게 된 외모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애국적 차원에서 송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순의 결심을 통해 애국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전쟁기 북한 소설에 등장하는 긍정적 인물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중국군이다. 안

함광은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이 북한 작가들에게 "조소 조중 친선을 비롯한 국제 친선 사상을 테마로 한 작품"을 창작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작가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 문학에 있어 국제주의 사상은 기본적인 테마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방과 원조의 은인인 위대한 쏘련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써 우리 인민을 승리로 고무 격려하여 주었다.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 밑에 중국 인민들은 인민 지원군을 직접 조선 전선에 파견하여 주었으며 그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전고 미문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우리 인민 군대와 함께 공화국의 존토를 피로써 고수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후방 사업을 적극 협력하여 주었다.

윤시철의 「나의 옛 친구」(『문학예술』 4권4호, 1951.7)는 대부분의 북한 문학사에서 이러한 주제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화자 윤이 소년 시절에 중국인 학교에서 주양을 알게 된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양은 외롭게 혼자 지내는 윤을 우애와 사랑으로 대해준다. 윤과 동갑인 열 세 살의 그는 일제에 대한 의분을 지니고 있어 이후 '타도 일본 제국주의 투쟁'에 참여한다. 이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자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만다. 그런데 윤은 20년이 지난 1950년 11월 하순 경에 중국 인민지원군이 되어 한국전쟁에 참가한 주양을 전선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주양은 '9·18 사변 후 집을 떠나서 8년 항쟁의 간고한 시기를 화북지구에서 싸웠으며 8·15 이후는 미제 침략 세력과 장개석 반동을 쳐 없애는 국내 전쟁에 참가하여 호남성과 해남도까지의 전 중국을 들고 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오랜만의 해후에 감격하면서 전의를 다진다. 다음과 같은 주양의 말은 이 작품의 주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 그놈들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어. 그러나 그 놈들은 우리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 우리들은 한길 위에서 서로의 같은 투쟁으로 새 사회를 세웠거든. 이제 와서 그놈들이 우리의 앞길을 더 막지

못하지 그렇지 않아? 윤! 우리 동무들은 미제국주의 강도놈들의 멸망을 보기 전에 조선 동무들 곁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몇번 맹세했는지 몰라!(p.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기 북한 소설에서 북한군을 포함한 애국적 인물과 중국군 등은 모두 긍정적 인물로 등장한다. 북한군과 애국적 인물은 대부분 혁명적 낙관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에 입각하여 형상화되고 있는바, 이들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굳은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극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위기와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영웅적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설혹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심각하지 않기에 이들은 대부분 교화되어 변모됨으로써 자체 내의 갈등은 결국 해소되고 만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농민 혹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개인 희생과 당에 대한 헌신,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북한 전쟁소설에서 중국군은 북한군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와 같은 존재이며, 이러한 형제 관계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이루어져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의를 고취하고자 하는 지나친 목적의식이 이처럼 인물을 도식적으로 형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 Ⅲ. 부정적 인물의 유형과 형상화 특성

한국전쟁기 북한 소설에서 미군과 한국군을 비롯한 '반동적 인물'은 모두 부정적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현상 역시 '적에 대한 중요성을 옹계 표현할 것'을 강조한 김일성의 지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지는 데, 실제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부정적 인물들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이태준의 작품들은 미군의 잔인성과 비겁함을 통해 미군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대사관」(1951.4)에서는 미군 비행사와 사저수의 형상화를 통해 '미군의 만행과 비굴함'을 폭로하고 있다. 비행기가 포탄에 맞아 낙하산을 타고 탈출한

미군 비행사 록크와 사저수 헐버트는 인민군에 의하여 붙잡힌다. 이들은 붙잡히자마자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 달라고 한다. 그러자 정치부 군관과 연대장은 통신병에게 이들을 "사단으로부터 연락 군관이 갈 때까지는 잘 맡아두었다가 보내라는 지시"(p.23)에 따라 가두어 둘 것을 명령한다. 그는 명령에 따라 이들을 피비린내가 나는 화약고로 데려간다. 이 화약고는 남한 경찰들이 경찰서 유치장이 파괴되자, "검속한 조선 애국자들의 가족을 가두었"(p.25)다가, 퇴각하기 전 이들을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해치웠던 곳이다. 이에 미군들은 자신들을 죽일 것으로 오인하여 살려달라고 비굴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자 통신병은 이러한 미군들을 향해 이 화약고가 "너희 미국 대사관"(p.28)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친다.

너희 놈들을 우리가 질근질근 씹어먹기루 씨원힐 줄 아니? 그렇지만 국제공범인가 뭔가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이진 않는 줄 알아라.(p.27)

이 작품은 이처럼 '미군들의 만행과 비굴함'을 보여 주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강한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문학사에서는 이 작품이 "우리 인민 군대를 국제법도 모르는 무도덕하고 무규률적인 군대로 중상하기 위하여 우리 측이 미국 포로에게 모진 박해를 가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묘사함으로써 우리 측 전상 포로들에게 대한 적들의 야수적인 살인 도살 정책을 합리화" 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왜곡된 평가는 '종파주의 잔재와 투쟁할 것'을 강조한 김일성의 지시와 이에 따른 정적들의 숙청사건과 관련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전쟁기 북한 전쟁소설에서 미군 못지 않게 부정적인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는 인물이 소위 '반동적 인물'이다. 반동적 인물이란 '조국해방전쟁'을 반대하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바, 한국군, 경찰, 치안대원, 유격대원, 지주, 친일파 등은 그 주요 인물에 해당한다. 이들은 성격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추악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북명의 「악마」(『문학예술』 4권1호, 1951.4)에서는 한국군이 여성을 겁탈하고 갓난아기를 밟아 죽이는 아

수와 같은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군 소위 구맹호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나이 많은 박철지를 구둑발로 차는 무지막지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 생김새 역시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왼쪽 뺨에 길다랗게 칼 맞은 흠집이 굼벵이처럼 돋아져 있는 구맹호의 구두발이었다. 막 쥐어잡은 메주탱이처럼 생긴 이 자는 과거에 권투쟁이로 주먹깨나 쓰던 덕분에 지금 국군소위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무엇을 들부리지 않으면 때려부시고 싶어서 주먹을 틀어쥐고 후들 후들 떠는 버릇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p.55.)

리정숙의 「보비」(『문학예술』 5권11호, 1952.11)에서는 전화국 교환수 보비의 영웅적 투쟁을 형상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을 학살하는 경찰의 잔인성을 고발하고 있다. 다음은 경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면을 묘사한 글이다.

경관놈들은 모두 네 늑인테 놈들이 삼으로 흙을 메꾸고 있는 구덩이 속에는 한 녀인이 까무러치게 우는 어린것을 꺼안고 있었다. 녀인의 갈래갈래 찢겨진 흰 옷은 구덩이로 쓸려드는 바람에 펄럭이는데 그 하반신은 이미 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다. <중략> 놈들이 퍼 던지는 흙이 가슴에 닿았을 때, 녀인은 신음 소리처럼 '아가' 하고는 어린 것을 머리위에 치켜들었다. 갓난애는 더욱 숨이 끊어질 듯이 울어댔다. 사정 없이 뒤덮이는 흙이 어깨 위에 찻을 때 녀인의 두 팔은 꺾이운 듯이 툭 떨어졌다. 어린 것도 땅 위에 굴러내렸다.(p.34.)

이처럼 한국전쟁기 북한소설에 등장하는 미군과 한국군, 경찰, 치안대원 등의 '반동적' 인물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으로만 형상화되고 있다. 미군은 야수처럼 잔인하지만 알고 보면 겁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미군은 잔인한 짐승과 같기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하며, 겁쟁이기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을 비롯한 '반동적' 인물들은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언제나 미군에 빌붙어 사는 초라한 존재로서 비겁하고

잔인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작중 화자는 편향적 서술 태도와 욕설로써 이들을 야유하며 비판하고 있는데, '적에 대한 증오심을 옹계 표현하라'는 김일성의 요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이다.

#### IV. 결론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발표된 북한 소설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들은 전쟁기 현실을 다루고 있다. 북한 소설은 전장을 배경으로 작전 계획 및 전투 활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등장인물을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로 도식적으로 구분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북한군을 비롯한 애국적 인물, 중국군 등은 긍정적 인물로, 한국군을 비롯한 '반동적' 인물, 미군 등은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서술 태도 역시 다분히 선동적이고 감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전쟁 당시 문학 예술의 무기화를 요구한 김일성의 창작 지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은 숭고한 애국심을 형상할 것,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표현 묘사할 것, 적에 대한 증오심을 옹계 표현할 것, 국제친선사상을 테마로 한 작품을 창작할 것 등을 요구하였던 바, 한국전쟁기 북한 소설이 다분히 도식적이고 친편일률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이러한 단일한 목적성에 충실하고자 한 결과 때문일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김선려, 리근실, 「조선문학사」11, 과학백과종합출판사, pp.5-232, 1994.
- 2)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pp.19-45, 2001.
- 3)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pp.9-230, 1995.
- 4)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pp.11-31, 1994.
- 5)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I, 청동거울, pp.13-46, 1999.
- 6)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I, 나남, pp.1-474, 1996.
- 7) 박종원, 류만, 「조선문학개관」II, 사회과학출판사, pp.143-180, 1986.

- 8)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깊은 샘, pp.43-70, 1999.
- 9)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편, 「조선문학통사」, 사회과학출판사, pp.235-267, 1959.
- 10) 신영덕, 「한국전쟁과 중군작가」, 국학자료원, pp.7-17, 2002.
- 11) 신형기, 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pp.121-162, 2000.
- 12) 안함광, 「조선문학사」, 연변교육출판사, pp.474-547, 1956.
- 13) 이재인, 「북한문학의 이해」, 열린길, pp.77-96, 1995.
- 14)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 pp.17-527, 1995.
- 15) 和田春樹, 서동만 역,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pp.1-420, 1999.
- 16) 김춘선, "북한문학의 전개양상을 통해 본 제 특징", 「현대소설연구」11, pp.382-400, 1999.
- 17) 신경득, "전란초기 조선 전쟁영웅소설의 영웅유형", 「배달말」24, pp.27-64, (1999).
- 18) 신영덕, "한국전쟁기 남북한 소설에 나타난 미군, 중국군의 형상화 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0집, pp.1-26, 2003.
- 19) 이은자, "북한 전시소설의 주제 특성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12, pp.337-362, 2000.